십자가 헤어스타일

(행18:18~28)

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헤어스타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배우 중에 신 현준이라는 배우를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시커멓고 꼭 중동사람처럼 생긴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괜히 아무 상관도 없지만 한 번 더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마흔여섯 살인데, 며칠 전에 결혼을 했어요.
꼭 제 아들이 결혼한 것같이 기뻐요, 제가 우리 아이를 결혼하고 17년 만에 낳았을 때 나이가 마흔한 살이었는데, 그때도 병원에서 간호원들이 집사람을 사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마흔여섯 살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내 되는 사람이 12살 아래인 분이라서 부지런히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 경우보다야 훨씬 좋은 상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이 그 아내 될 분에게 남해의 어느 펜션에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반지로 프로포즈하지 않고 목걸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십자가목걸이였다고 합니다.
아,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 우리가 쉽게 제로원의 원리라고 이름

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알면서 프로포즈를 한 것일까?
그 원리를 알고 이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상상해봅니다.
십자가목걸이를 건네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당신이 나를 볼 때는 나는 2천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서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만날 때는 언제나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마음은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있게 되면 당신은 언제나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이렇게 평생 나를 만나는 동안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살 각오가 돼 있느냐?'
하하, 이렇게 프로포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라 이겁니다.

전세계에서 목걸이, 펜던트라고도 하지요, 그 목걸이 장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이 십자가에요.
남미 축구선수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활동하는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십자가목걸이를 걸고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게 되면 성호를 긋고 나서 꼭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십자가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 의미를 알면서 갖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목걸이를 만지고 거울로 보고 할 때마다 '아, 내가 이천 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지?' 사업하는 사람이건 연애하는 사람이건 공부하는 학생이건, 장사하는 사람이건 그 누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면 제가 설교할 필요 없지요, 제로원복음방송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하지요.

사도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의 외항입니다, 항구도시로 고린도와 거의 붙어있어요.
이 겐그레아에서 사도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두고, 참으로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 깎았는지 전후좌우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만 있고, 하나의 단서를 붙여주는데, 일찌기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만

한 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사건이 제가 신학교 때부터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계속 오해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쉽게 오해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머리를 깎습니까?
대부분 데모하는 장면에서, 노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이럴 때 보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띠를 두를 때 '필사항쟁'이라고 써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을 대부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겐그레아에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맹세나 다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게 아닙니다.
본문에 '일찌기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상황이 거꾸로에요.
겐그레아에 있게 된 이 시점으로 볼 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각오를 다졌고 결심을 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길렀다가 이제 그 각오하고 결심한 서원의 기간이 끝났으므로, 겐그레아에 있는 시점이 서원이 끝난 시점이므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즉, 우리는 필사의 각오와 항쟁과 투쟁을 할 때 머리를 깎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라는 얘깁니다.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길렀고,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런데 매번 신학교에서 데모를 할 때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깎는 거예요.
얼마 전, 미션스쿨에서 종교교육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이 마련되려고 할 때도 교단의 어른들이 머리를 깎고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식으로 따라하려면 그때 머리를 길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기르면서 자기의 각오를 자신에게 확인시켜준 것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구약의 나실인 규례가 있잖아요? 포도주를 먹지 말며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 이 나실인 규례가 30일 동안 지킬 수도 있고, 60일 동안 지킬 수도 있고, 2년 동안 지킬 수도 있고 평생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구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을 때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나실인 규례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 규례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뭔가 결심한 것이 있는데, 머리를 기르면서 자기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을 자기에게 계속 확인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시키겠다고 한 서원의 기간이 끝난 뒤에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러니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일까?
이 고린도에 있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다짐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무얼 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에 사도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사도바울이 결심하고 다짐한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 언급을 한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 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런데 이러한 작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말고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데,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그 분위기와 상황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즉 아테네에서의 선교 이후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박해가 약했어요.
그런데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고난 후유증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심한 것이 뭐였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기른 거예요, 구약의 규례를 재현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나실인 규례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머리를 기르면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그 긴 머리를 만지고 긴 머리를 보면서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듯이 십자가 장애인으로서의 체질을 고린도교회에서 구축을 한 겁니다.
아테네에서의 선교 실패 후에 심하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가운데, 아테네에서처럼 그런 궤변을 늘어놓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머

리를 1년 6개월 동안 기르면서 자기 마음속에 때려 박아놓고 때려 박아놓고, 그 결심을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십자가 장애인으로서의 체질로 변해간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생각해봅니다, 2차 선교여행중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 우리가 이미 짚어보았습니다만, 온 교회가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감동시켜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선교를 위해 따로 구분하여 세우라고 지시하시고 둘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어땠습니까?
싸우면서 출발합니다, 마가 요한을 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갖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싸우면서 시작한 2차 전도여행의 거의 후반부에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가 마지막 지점이에요.
고린도에서 2차 여행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차 여행을 하는 것까지 나타나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꼭 핫바지 방귀 새듯이 슬그머니 시작이 됩니다.
1차와 2차 때처럼 뚜렷한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2차 선교여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싸우면서 시작했어요, 2차 선교여행을.
그런데 아테네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해서 시작했나 하면 분노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합니다.
온 도시를 돌아다녀보다가 우상이 만연한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출발시킵니다, 어떤 학자는 궤변이라고까지 해요.
말의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에서 궤변이라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분노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우상이 가득하고 신상이 3만여 개가 있는 아테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아테네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바 선교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바울로 하여금 입을 열어 십자가복음을 전하게 했을 것입니

다.
근데 자기 분노에서 시작을 하고 아테네 선교에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싸움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노 때문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벌벌 떨면서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알겠다!'
이 말뜻은, 나에게 십자가만을 적용할 것이고, 남에게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와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지역에 머물러 있는 1년 6개월 동안에 머리를 기르며 긴 머리를 바라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나는 십자가 장애인이다,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더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이게 십자가만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십자가만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1년 50주 중에 십자가라는 말이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서도 일년 내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2천 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차 때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게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발의하게 되고, 바나바 사도와 싸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분노에서부터 말씀을 출발시켜서 전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22절까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원점인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차 여행을 너무도 시부적하게 시작을 해요, 어떤 뜻이 담겨있을까요?
십자가 장애인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향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스물네

시간 기억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는,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차 여행 때처럼.
이미 성령의 장중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살 것인가, 어떻게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것인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스물네 시간 십자가만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어떤 상황이 귀에 들려도 나는 십자가에서 이천 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내 마음은 보이고 들리는 이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몸에 처한 상황들은 주님께서 대처해나가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스물네 시간 성령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따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따로 기입하고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성령의 장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차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시부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머리를 기르면서 십자가 모양의 헤어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머리를 보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때려 박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헤어스타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십자가 모양이라서 십자가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한 결심을 마음속에 때려 박아 체질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1년 반 동안이나 머리를 길렀던, 그것이 십자가 헤어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십자가 장애인이 내 마음에 체질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세요!
바울처럼 머리를 기르면서, 긴 머리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아니면 십자가목걸이를 왕방울만한 것을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십자가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왜 그냥 장식으로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손바닥에다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고 다른 사람 안 보게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무슨 일에 손을 대야 될 때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내가 손대는 이 일의 성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제 내가 손대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산다면 성령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같은 맥락의 이야기에요.
이렇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것은 요한은 십자가사건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안내를 따라서 십자가 장애인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 전하는 자들이 십자가 장애인의 상태로 진입해 들어간 뒤에라야 성령의 장악이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십자가 장애인이 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머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십자가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가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사도바울처럼 찾아서, 일정기간 동안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십자가 장애인 됨이 나의 체질이 될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